

해남 녹우당 소장 「恩賜帖」 고찰

A Study on the *Eunsacheop* Owned by Nokwoodang in Haenam

金 奉 佐(Kim, Bong-jwa)*

◁ 목 차 ▷

1. 서론	3.1 恩賜文의 개념
2. 「恩賜帖」의 구성과 성첩과정	3.2 문서작성규식과 용어
2.1 구성내용	3.3 윤선도에 대한 恩賜 배경
2.2 성첩과정	4. 결론
3. 恩賜文의 규식과 내용	<참고문헌>

< 초 록 >

海南尹氏 綠雨堂에 소장된 「恩賜帖」 두 책에는 尹善道(1587-1671)가 왕으로부터 받은 有旨, 傳敎를 비롯하여 왕실에서 물품을 하사하면서 발급한 문서 즉 '恩賜文'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윤선도는 仁祖代 鳳林大君과 麟坪大君의 師傅를 5년 동안 겸임하면서 왕실과 각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윤선도에게 여러 차례 내려진 恩賜 물품과 은사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은사첩」이 엮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 낱장의 은사문들이 윤선도의 손을 거쳐 '軸' 형태로 전해내려 오다가 尹棕(1705-1757)에 이르러 현재의 '帖' 형태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고문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은사문의 작성규식과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은사문의 발급주체는 大殿, 內殿, 大君房으로 대별되고, 이 중 大殿의 경우 담당관청이 內需司, 廂庫, 農圃 등으로 나타나는데, 발급주체와 발급관청에 따라 작성규식과 용어 등이 확연히 다르게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수차례의 은사가 행해졌고 이와 관련된 기록들은 많이 남아 있으나, 은사의 과정과 구체적인 물품을 볼 수 있는 문서는 흔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해남윤씨 녹우당에 전해 내려오는 여러 장의 은사문은 조선 왕실의 은사 시행 과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要語 : 해남윤씨, 녹우당, 은사첩, 은사, 은사문, 윤선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연구원(likecho@aks.ac.kr)
 접수일: 2006년 5월 11일 최초심사일: 2006년 5월 12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16일

<ABSTRACT>

In the two books of the *Eunsacheop*(恩賜帖) owned by Haenam Yun's family Nokwoodang, not only Yuji(有旨) and Jeongyo(傳教) issued by the king, but also a number of 'Eunsamoon (Document of the Royal Grant, 恩賜文)', the documents which accompanied the articles granted by the Royal Court to Yun Seon-do(尹善道), are included. *Eunsacheop* means the book of Royal grants. Yun Seon-do had built a special relationship with Royal household by teaching both Bongrim(鳳林) Prince and Inpyeong(麟坪) Prince for five years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仁祖). It is evidenced by those gifts and the documents granted by the Royal Court to Yun Seon-do.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unsamoons that Yun Seon-do received from the Royal household were compiled as the present *Eunsacheop*, and found that each sheet of Eunsamoon was kept by Yun Seon-do in the form of 'Chuk(軸)' and later compiled as 'Cheop(帖)' by Yun Jong(尹悰).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standards of format and characteristics of Eunsamoon, which is a kind of old documents of the Joseon Period. The issuers of Eunsamoon can be classified largely into Daejeon (of King, 大殿), Naejeon (of Queen, 內殿), Daegoonbang (of princes, 大君房) and in the case of Daejeon, the authorities in charge were Naesusa(內需司), Sanggo(廂庫) and Nongpo(農圃). It was proved that drawing-up standards and term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issuers and issuing authorities. The Royal household in the Joseon Dynasty had granted many gifts and the relevant records remained, but there are only few documents which show the procedure of Royal grants and the detailed list of articles. That is why the Eunsamoons preserved in Haenam Yun's family Nokwoodang should be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studying the procedure of Royal grants.

Key words : Haenam Yun's family, Nokwoodang, *Eunsacheop*, Royal grant, Eunsamoon, Yun Seon-do

1. 서론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신하와 백성들에 대해 여러 가지 禮를 표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恩賜를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즉, 어떠한 공을 세운 신하나 백성들에게 특별히 상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일에 대해 감사나 위로의 뜻을 전해야 할 때, 사적인 관계에서 의례적으로 선물을 줄 때 등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은사가 이루어졌다. 조선 왕실에서 이루어진 수차례의 은사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등의 대표적인 역사 기록물뿐만 아니라 각종 문집과 연보, 일기 등의 기록물에서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은사를 받은 대상자와 하사 물품 등 은사가 시행된 결과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은사 시행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海南尹氏 綠雨堂에 전해져오는 여러 건의 恩賜文은 조선 왕실의 은사 시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고문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남 녹우당에 소장된 「恩賜帖」(乾·坤 두 책)에는 尹善道(1587-1671)가 왕으로부터 받은 有旨, 傳敎를 비롯하여 왕실에서 물품을 하사하면서 발급한 문서 즉 은사문 등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은사문은 윤선도가 仁祖代 鳳林大君과 麟坪大君의 師傅로 있었던 기간에 받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인조뿐 아니라 仁祖妃 仁烈王后, 봉림대군 등 발급주체가 다양하다. 사부를 그만둔 뒤에도 몇 차례의 은사가 있었지만, 사부 시절에 받았던 은사처럼 일상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므로 윤선도가 받은 여러 건의 은사문은 大郡師傅에 대한 왕실의 예우가 어떠했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은사문은 왕실에서 발급된 문서 중의 하나로 흔하지 않은 자료이다. 또 海南尹氏家에서처럼 여러 건의 문서가 잘 보존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다보니 윤선

1) 보물 482호로 지정된 「恩賜帖」은 서지사항과 사진이 단행본을 통해 소개되었다.
 서지사항 - 宋日基·盧基春, 「海南綠雨堂의 古文獻」 第1冊 (서울: 태학사, 2003), 365.
 사진 - 宋日基·盧基春, 「海南綠雨堂의 古文獻」 第2冊 (서울: 태학사, 2003), 122-132.
 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을 통해서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각각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도가 받은 은사문은 일찌감치 「朝鮮史料集眞續解說」²⁾에서 ‘恩賜狀’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고, 이후 海南尹氏家의 고문서들이 영인·출판될 때에도 이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었다.³⁾ 또 ‘下膳狀’이라는 명칭으로 소개되기도 했다.⁴⁾ 그 결과 고문서를 내용과 형식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서 이 문서를 ‘下膳狀’ 혹은 ‘賜送記’로 명명하고 있다.⁵⁾ 이렇듯 ‘왕실에서 물품을 하사하면서 발급한 문서’가 각기 다른 명칭으로 쓰였으나, 모두 문서의 성격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문서의 성격과 부합하는 새로운 명칭을 정하였고, 이하에서 이 문서들을 모두 ‘恩賜文’이라고 명명하였다. 문서 명칭과 개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은사첩」에 수록된 여러 건의 은사문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은사첩」의 형태와 구성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낱장의 은사문이 현재의 ‘帖’ 형태로 엮이게 된 경위와 수록 문서들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은사문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발급된 고문서로서 일정한 문서규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은사문을 발급주체와 발급담당관청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작성규식과 내용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은사문이 작성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은사문 발급 시기와 윤선도의 정계 생활을 연관시켜 은사 배경을 살펴보았다.

2. 「恩賜帖」의 구성과 성첩과정

2.1 구성내용

「은사첩」乾책에는 1652년(孝宗3) 1월 23일 윤선도를 成均館 司藝로 임명하면서 내린 有旨, 1652년 4월 10일에 孝宗이 承政院을 통해 윤선도에게 내린 傳敎,

2) 「朝鮮史料集眞續解說」第三輯(朝鮮總督府, 1937), 5-7.

3) 「古文書集成」三(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15-29.

4)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서울: 知識産業社, 1989), 122.

5) 尹炳泰 等 共著, 「韓國古文書整理法」(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59.

恩賜文 謄書記, 恩賜文 42장이 있고, 坤책에는 恩賜文 52장과 1790년(正祖14) 12월 7일에 수원부사 趙心泰에게 내린 傳令이 수록되어 있다.

두 책에 수록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恩賜帖」의 구성 내용

* < > : 「附錄」의 번호 참조

	내 용	문서 관련 기간	면수
「恩賜帖」乾	有旨	1652(孝宗3).01.23	1-4
	傳教	1652(孝宗3).04.10	5-7
	恩賜文 謄書記 <1-19>	1628(仁祖6).04.04 ~1629(仁祖7).10.27	9-13
	恩賜文 <1-42>	1628(仁祖6).08.02 ~1630(仁祖8).06.13	13-54
「恩賜帖」坤	恩賜文 <43-94>	1630(仁祖8).06.21 ~1660(顯宗1).06.07	1-55
	傳令	1790(正祖14).12.07	56

有旨와 傳教는 1652년의 것으로, 대군 시절 師傅였던 윤선도에 대한 배려를 읽을 수 있는 문서이다. 有旨는 孝宗이 가르침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윤선도를 成均館 司藝로 임명하면서 역마를 내려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고, 傳教는 윤선도가 同副承旨 임명과 관련하여 사간원 등의 참소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면직되자 해남으로 내려가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을 承政院을 통해 전한 것이다.

그 다음 장에는 은사문을 ‘미처 수습하지 못하여 잃어버린 것’과 ‘누락된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록한 것이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물품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본고에서는 ‘恩賜文 謄書記’라 부르기로 한다. ‘미처 수습하지 못하여 잃어버린’ 은사문은 1628년(仁祖6) 4월 4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받은 7장으로, 大殿과 內殿, 大君房으로부터 하사 받은 벼루[硯], 먹[墨], 붓[筆], 朔紙, 祿米, 후추[胡椒], 부채[扇子], 갈모[笠帽] 등이 일일이 기재되어 있다. 또 ‘누락된’ 은사문은 1628년 8월 14일에서 1629년(仁祖7) 10월 27일 사이에 받은 12장으로, 하사 받은 물품으로는 책력[曆日], 煎藥, 黃柑, 祿米, 白紙, 날평고기[生雉]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乾·坤 두 책에 걸쳐 94장의 은사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한 장에 두 건 이상의 은사 내역이 기록된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은사 내역 건수를 연도별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도별 은사 내역

연도		1628 (仁祖6)	1629 (仁祖7)	1630 (仁祖8)	1631 (仁祖9)	1632 (仁祖10)	
은사문		6	24	22	16	12(1)	
등 서	은사문 등서기	12	7	0	0	0	
	은사문 내	1	1	2	3	4	
연도		1633 (仁祖11)	1652 (孝宗3)	1657 (孝宗8)	1658 (孝宗9)	1660 (顯宗1)	합 계
은사문		4	4	3	1	0(1)	92(2)
등 서	은사문 등서기	0	0	0	0	0	19
	은사문 내	0	0	0	0	3	14

* (): 별도의 문서이나 원본이 아닌 것.

* 은사내역: 총 125건

위 표를 통해 윤선도가 왕실로부터 받은 은사 내역이 총 125건에 달함을 알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은사는 윤선도가 대군의 사부로 있었던 1628년에서 1632년(仁祖10) 사이의 기간에 몰려 있고, 총 125건 가운데 110건으로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는 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은사문 다음으로 수록된 것이 1790년 12월 7일에 正祖가 수원부사 趙心泰에게 내린 傳令 寫本이다. 조심태가 큰 공을 세워 정조는 그의 집안사람들 모두를 수원의 科試에 참가하게 했다. 다만 海南尹氏의 경우, 試券에 8명의 이름이 올라 있지만 해남과 거리가 멀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도 있을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植木條로 돈 1천 냥을 특별히 주어 마을을 이루게 하는가 하면 직계 후손은 모두 시험 응시를 허락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령을 내렸고, 이것을 누군가가 필사하여 「은사첩」에 붙여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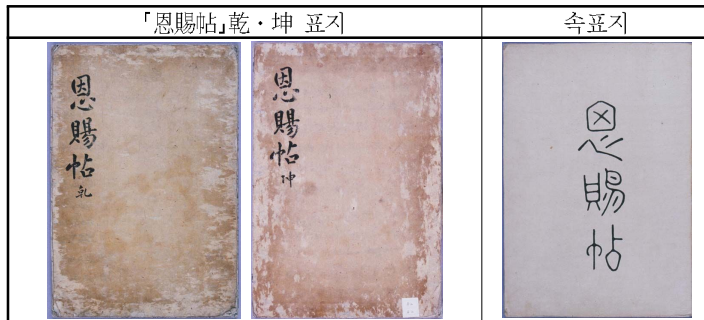
이상에서 「은사첩」에는 은사문 외에도 유지, 전교, 전령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문서들이 함께 수록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모두 왕실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내용이므로 ‘은사’라는 넓은 개념으로 포괄하여

함께 엮은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2.2 성첩과정

「恩賜帖」은 乾·坤 2책으로, 크기는 두 책 모두 34.3×23.4cm(세로×가로)이다. 표지는 황색비단으로 장황되어 있고, 책 안쪽에 古文[篆文]으로 ‘恩賜帖’이라 쓴 속표지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 1> 「恩賜帖」표지



‘帖’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은 표지뿐만이 아니다. 수록된 각각의 문서 크기도 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첩 크기에 맞게 조금씩 변형이 가해졌다. 예를 들어, 乾책의 앞부분에 실린 有旨는 원문서가 크기 때문에 글자가 있는 부분만 한 줄씩 잘라서 첩 크기에 맞게 붙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은사문 등 다른 문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 이 첩에서 주목할 점은, 은사문을 정리하면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添記 부분이다. 어떠한 경우에 누가 물품을 하사했는지 알 수 있도록 은사문의 여백에 그 발급주체와 발급사유, 발급날짜 등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 은사문에 발급주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大殿賜送’, ‘內殿賜送’, ‘大君惠送’, ‘自家惠送’이라고 썼고, 발급사유가 윤선도의 생일일 때는 ‘善道初度’, 윤선도의 병 때문일 때는 ‘善道病時’, ‘有賤疾時’라고 써서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다.

<도 2> 恩賜文의 '添記' 부분

발급주체				발급사유		
大殿 賜送	內殿 賜送	大君 惠送	自家 惠送	善道 初度	善道 病時	乞賤 疾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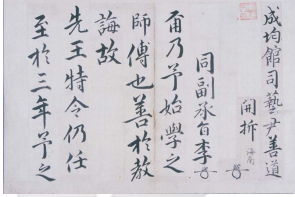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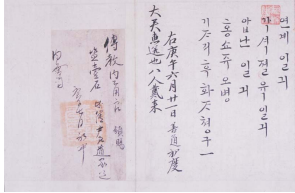

그렇다면 94장의 은사문을 비롯한 낱장 문서들을 하나의 첩으로 만들어 좀더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열람하기 쉽게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또 누구라도 은사문의 발급주체와 발급사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은사문의 여백에 添記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러한 의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준 것은 다름 아닌 「孤山先生年譜」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윤선도는 여러 차례 관직을 옮겼지만 특별히 師傅를 겸하여 5년 동안이나 대군들의 사부로 있었는데, 왕실의 대우가 융숭하여 大殿과 內殿, 大君房에서 항상 하사품을 내리시면서 거의 한 달도 거른 적이 없었고 한 달에 두어 번 내리신 적도 있었다고 한다. 또 내전에서서는 윤선도의 생일을 은밀히 알아내어 매년 생일에 번번이 풍성한 은사가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훗날 孝宗이 되는 鳳林大君은 윤선도를 항상 '先生'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존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왕실의 예우에 윤선도는 여러 해 동안 하사받은 물품의 帖子 하나하나를 軸으로 만들어 보관하면서, “내가 이렇게 보관하고 정리한 이유는 후대 자손들도 눈에 보는 듯이 하여 백세토록 잊지 않고 내가 다 갚지 못한 것을 갚게 하고자 함이다.”라고 하였다.⁶⁾ 즉, 연보의 기록을 통해 윤선도는 여러 차례

6) 公前後累遷官, 特命兼察師傅, 限滿, 輒命仍帶者, 首尾凡五載, 眷注愈隆, 兩殿暨大君房無時賜賚, 殆無虛月, 或一月再下. 內殿嘗密探公之生日, 公戒家人勿言, 遂詢諸警師. 國俗, 警師業推命, 凡世之聞人生日, 必皆知之, 警師以告, 輒大供具以賜. 孝廟潛邸時, 平居語及公, 必稱先生. 其手札莫不皆然, 而御諱著署, 極其尊敬, 公作卷珍藏, 以作傳家寶, 且以積年賜物帖子, 一一藏軸, 曰, “吾所以藏收若此者, 欲使後代雲仍亦如目見, 百世不忘, 而

받은 은사문을 후손들이 보고서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게 하고자 ‘軸’ 형태로 만들어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윤선도는 당시 은사문을 하나하나 정리할 때, 미처 수습하지 못하여 잃어버린 것과 누락된 것을 모아서 기록한 ‘恩賜文 謄書記’를 작성하고, 은사문의 여백에는 발급주체 혹은 발급사유를 添記한 것으로 보인다.⁷⁾ 은사문 중 한 장에 두 건 이상의 은사 내역이 기록된 것 역시 윤선도가 은사문을 일차적으로 정리하면서 같은 날짜에 받은 은사 내역을 기록하거나 이전에도 같은 물품을 받았었다고 추고하여 기록한 것인 듯하다.

날장의 문서에서 軸형태로 만들어진 은사문은 해남윤씨가에서 잘 보관하면서 대대로 전해오다가 윤선도의 5대손 尹悰(1705-1757)에 의해 현재의 帖형태로 만들어진 듯하다. 이 같은 추론은 두 책의 첫째면 오른쪽 상단에 각각 날인되어 있는 ‘尹悰之印’이라는 藏書印⁸⁾에서 기인한 것이다.

<도 3> 尹悰의 藏書印 ([尹悰之印])

	원 문서	세 부
乾책		
坤책		

報我之所不能盡報者。”(「孤山先生年譜」卷1, 10.)

- 7) ‘은사문 등서기’와 ‘첨기’ 부분의 필체가 1630년(仁祖8)에 윤선도가 자필로 작성한 분재기의 글씨와 동일하므로, 윤선도가 쓴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분재기는 「古文書集成」三(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127.’에 영인되어 있다.)
- 8) 크기는 26.9×26.8×65.7mm(가로×세로×깊이)이고, 玉으로 만든 것이다. (宋日基·盧基春, 第1冊(2003), 306.)

윤종이 구체적으로 언제 첩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윤종은 윤선도가 왕실로부터 받은 특별한 대우를 모두 ‘恩賜’라고 여겨 ‘恩賜帖’이라는 제명 하에 유지와 전교를 은사문과 함께 첩으로 만든 듯하다.

한 가지 의문점은 「은사첩」 坤책 마지막 면의 傳令 寫本을 누가 붙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서는 1790년에 발급된 전령을 필사한 것으로, 윤종이 성첩한 뒤에 붙인 것이기 때문이다.

3. 恩賜文의 규식과 내용

3.1 恩賜文의 개념

은사문은 지금까지 ‘은사장’, ‘하선장’, ‘사송기’와 같은 각기 다른 명칭으로 지칭되어 왔다. 우선 각 명칭의 적합성을 살펴보자. 은사장은 ‘왕실에서 특별히 물품을 하사하면서 발급하는 문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은사장의 ‘狀’은 주로 윗사람에게 의견 혹은 사실을 진술하는 문서⁹⁾를 가리키기 때문에 적합한 명칭은 아니다. 그리고 하선장은 주로 魚物 등의 반찬[膳] 즉 음식물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므로, 실제 문서에서 많이 보이는 문방구, 부채, 활, 칼 등 음식물 외의 물품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사송기는 발급주체가 大殿이나 內殿인 경우 ‘賜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 나온 명칭으로 보인다. 사송은 실제 문서에 쓰인 용어지만 ‘하사하여 보낸다’라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서 명칭으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사송기의 ‘記’는 주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기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문서를 지칭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이렇듯 기존의 명칭들은 이 문서들의 특성을 적합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서의 성격과 부합하는 새로운

9) 狀：文體名。向上級陳述意見或事實的文書。(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5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11.)

문서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서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은 문서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면서 조선시대에 많이 사용된 용어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입각하여 「朝鮮王朝實錄」에서 나라에서 물품을 하사할 때 쓰인 용어를 찾아본 결과 ‘頒賜’,¹⁰⁾ ‘賜與’,¹¹⁾ ‘賜送’, ‘恩賜’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들 중 ‘왕이 특별히 하사한다’는 의미를 지닌 ‘은사’가 문서의 성격과 잘 부합하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은사는 실록 기사에서 왕이 특정 신하에게 특별히 관직이나 권한, 물품 등을 내릴 경우 많이 썼던 용어이다. 그 중 科學와 관련하여 初試를 시험없이 통과하고 會試[覆試]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뜻으로도 쓰였는데, 여기서 科學와 관련된 갖가지 특혜들을 가리키는 恩賜科, 恩賜劃, 恩賜及第, 初試恩賜帖 등의 용어들이 나왔다. 이렇듯 은사는 조선시대 왕실의 특혜와 관련하여 심심찮게 쓰였고, 다른 용어에 비해 새로운 명칭을 파생시키는 등 활용도가 높은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왕 및 왕실에서 특정 신하에게 물품 등을 하사할 때 그 내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문서의 명칭으로는 ‘恩賜文’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3.2 문서작성규칙과 용어

은사문은 발급주체나 발급관청에 따라 문서 규칙이나 표현 용어가 각각 다르게 쓰였다. 은사문의 발급주체는 大殿, 內殿, 大君房으로 대별된다. 大殿의 命으로 은사가 행해질 경우에는 왕실의 소용 물품을 관리하는 內需司, 廂庫, 農圃 등 담당관청에서 은사 대상자에게 물품을 내리면서 관련 문서 즉 은사문을 각각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성하고 직인을 찍었다. 內殿과 大君房에서는 직속 담당

10) 頒賜는 나라에서 특정 물품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쓰는 용어이다. 참고로, ‘頒賜記’라는 문서 명칭이 「朝鮮王朝實錄」(端宗元年 7月 22日(條).)에 보이는데, 이것은 ‘반사 물품의 수량과 대상자 명단을 기재한 문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
 11) 賜與는 그 뜻이 「經國大典註解」後集 吏典條에서 ‘무릇 물건을 줌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을 賜라 한다. 與라는 것은 허락함이다.(凡以物相饋, 上之於下曰賜, 與者, 許也.)’라고 정의되어 있다.

관리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찍지 않는 대신 着名¹²⁾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사문 가운데에는 문서를 발급한 담당관청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발급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윤선도가 은사문을 일차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서 여백에 ‘大殿賜送’, ‘內殿賜送’, ‘自家惠送’ 등과 같이 발급주체를 添記해 놓았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3.2.1 大殿

은사문의 발급주체가 大殿인 것은 시기에 따라 仁祖와 孝宗으로 구분된다. 「은사첩」에 등서되어 있거나 수록된 은사문 125건 가운데, 발급주체가 仁祖인 것은 1628년(仁祖6) 5월에서 1633년(仁祖11) 4월 사이의 47건이고, 발급주체가 孝宗인 것은 大君 시절을 제외하면 1652년(孝宗3) 7월에서 1658년(孝宗9) 3월 사이의 8건이다. 두 왕대의 문서 규칙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편의상 ‘大殿’이라는 범위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한다.

발급주체가 大殿인 은사문 중에는 ‘內需司’나 ‘農圃’처럼 문서발급관청의 명칭을 기재하고 해당 官印을 찍은 것이 있고, 혹은 발급관청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奉使之印’이나 ‘廂庫之印’과 같이 해당 官印만 찍은 것이 있다. 은사문의 발급관청인 內需司, 農圃, 廂庫 등은 모두 조선시대 왕실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던 곳으로 각각 관장하고 있던 물품이 달랐던 것 같다. 그러므로 하사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담당관청에서 해당 물품을 운송하고 은사문을 작성했던 것이다.

가. 內需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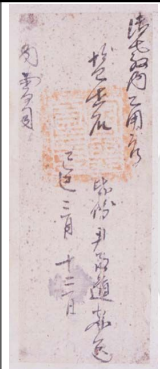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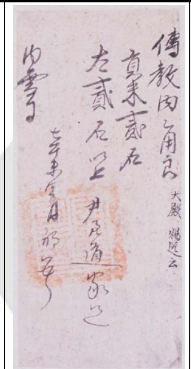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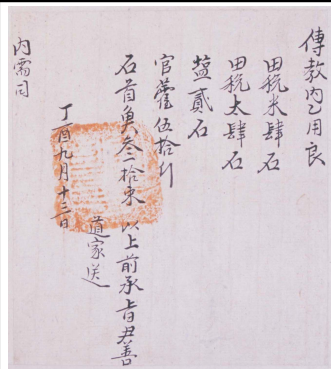
내수사에서 발급된 은사문은 14건이다. 內需司는 조선시대 왕실 재정의 관리

12) 着名은 이름을 변형하여 쓴 署名 방식이다. 着名은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면 된다. 朴竣鎬, “韓國 古文書의 署押 形式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2004).

를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로, 왕실의 쌀·배·잡화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본래 면세의 특권을 부여받은 內需司田과 외거노비인 다수의 내수사 노비 및 鹽盆을 소유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내수사에서 작성되는 은사문은 ‘傳敎의 내용에 따라서 (물품)을 ○○○家에 보냄.(傳敎內乙用良(물품)[職銜][姓名]家送)’이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이어서 발급날짜, 발급관청명칭 즉 ‘內需司’가 차례대로 기재된다. 그리고 ‘內需司印’이라고 새겨진 官印(方6)을 찍는 것이 특징이다. 한 예로 <恩賜文2>를 살펴보면, ‘傳敎 내용에 따라 소금 한 섬을 윤선도가에 보냄.(傳敎內乙用良 鹽一石 尹善道家送)’이라는 문구와 함께 연월일과 담당관청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내수사에서 보낸 물품으로는 소금(鹽)이 가장 많고, 이밖에 쌀[貢米, 倉米, 田稅米], 콩[太, 貢太, 田稅太, 官藿], 조기[石首魚] 등이 있다.

<도 4> 內需司 발급 恩賜文의 규식과 실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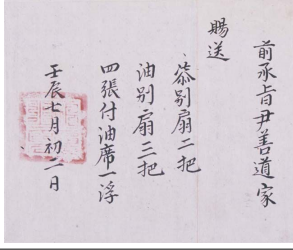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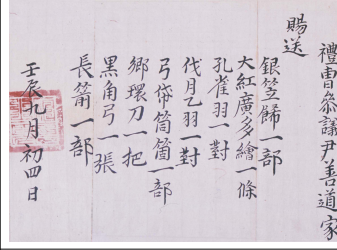
규 식	실 례		
傳敎內乙用良 (물품) [職銜][姓名]家送 內需司 年月日	 <p>恩賜文22</p>	 <p>恩賜文55</p>	 <p>恩賜文91</p>

나. 廂庫

상고는 內侍府의 尙帑(중5품)이 관장했던 大殿廂庫를 가리키는 것으로, 왕을 비롯한 왕실의 소용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인 듯하다. 상고에서 작성된 은사문은

모두 10건으로, ‘廂庫之印’(方7)이라고 새겨진 관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 문서는 ‘○○○家에 하사하여 보냄.([職銜][姓名]家賜送)’이라는 문구와 보내는 물품의 명칭이 나열되고, 마지막에 발급날짜를 쓴다. 상고에서 내보낸 물품은 후추[胡椒], 옷칠한 부채[漆別扇], 기름 먹인 부채[油別扇], 옷칠하지 않은 큰 부채[白貼扇], 은 갓 장식[銀笠飾], 공작새 깃털[孔雀羽], 흑각활[黑角弓], 긴 화살[長箭] 등으로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물품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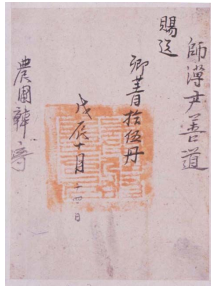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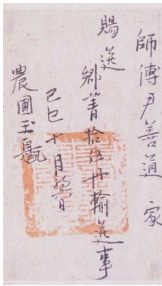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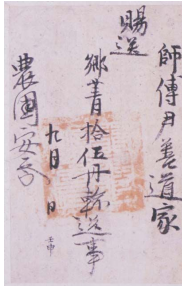
<도 5> 廂庫 발급 恩賜文의 규식과 실례

규 식	실례	
賜送 (물품) 年月日 「職銜」姓名家	 <p>前承旨尹善道家 賜送 漆別扇二把 油別扇三把 四張付油席一浮 壬辰七月初二日</p>	 <p>禮曹參議尹善道家 賜送 銀笠飾一部 大紅廣多繪一條 孔雀羽一對 代月乙羽一對 弓筈筒箭一部 鄉環刀一把 黑角弓一張 長箭一部 壬辰九月初四日</p>
	恩賜文87	恩賜文89

다. 農圃

농포에서 작성된 은사문은 모두 4건이다. 이들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구는 ‘사부 윤선도가에 하사하여 보냄. (물품)을 수송하는 일.(師傅尹善道家賜送(물품)輸送事)’이다. 다음으로 발급날짜와 함께 발급관청명칭인 ‘農圃’와 농포의 담당관원이 자신의 姓을 쓰고 著名하고 있다. 그리고 ‘奉使之印’이라고 새겨진 官印(方8)을 찍었다. 농포에서 보내는 물품은 무(鄉菁) 한 종이고, 보내는 시기가 9월이나 10월에 한정되어 있다.

<도 6> 農圃 발급 恩賜文의 규식과 실례

규 식	실 례		
賜送 (문물)輸送事 年月日 農圃(姓)着色			
	恩賜文3	恩賜文25	恩賜文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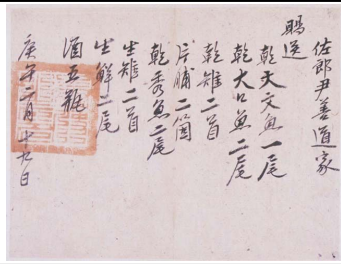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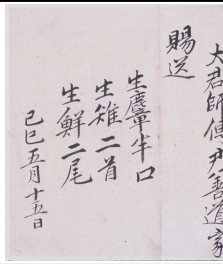
라. 發給官廳 未詳

발급처와 관련된 단서가 없어 정확한 발급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모두 27건이다. 이 문서들은 ‘奉使之印’이 날인된 것 20건, 관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것 1건, 등서된 것 6건으로 구분된다.

‘奉使之印’(方8)은 본래 왕의 使命을 받드는 官僚를 나타내는 직인으로, 특정 관청에 한하여 사용된 인장은 아니다. 그러므로 해당관청이 어디인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 문서에 나타나는 물품으로는 마른 문어[乾文魚], 마른 대구[乾大口魚], 마른 송어[乾秀魚], 마른 붕어[乾鮒魚], 마른 광어[乾廣魚], 전복[全鮑], 생선[生鮮], 날대하[生大蝦], 날꿩고기[生雉], 날사슴뒷다리[生鹿後脚], 날옹어[生葦魚], 날노루고기[生獐], 잣[柏子], 당유자[唐柚子],洞庭橘, 붉은 소주[紅燒酒] 등이 있다. 이밖에 관인이 없는 은사문에 나타나는 물품으로 날노루고기[生獐], 날꿩고기, 생선이 있고, 등서된 은사문에는 후추, 부채, 말, 마포교초[麻浦郊草], 표범가죽[豹皮] 등의 물품이 보인다.

이들 문서의 규식은 관인을 제외하면 ‘○○○家에 하사하여 보냄.([職銜][姓名]家賜送)’이라는 문구와 하사 물품의 명칭이 나열되고, 마지막에 발급날짜를 쓴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도 7> 발급관청 미상 恩賜文의 규식과 실례

규 식	실 례	
賜送 (물품) 年 月 日 [職銜][姓名]家	 賜送 佐郎尹善道家 乾天文魚一尾 乾大口魚二尾 乾大魚二尾 片脯二箇 乾香魚二尾 生雞二首 生雞一尾 酒五瓶 庚子二月十九日	 賜送 大君師傅尹善道家 生鹿半牛口 生雞二首 生雞二尾 己巳五月十五日
	恩賜文33	恩賜文 16

3.2.2 內殿

은사문에 기재된 ‘內殿’의 주인공은 仁祖妃 仁烈王后 韓氏다. 인열왕후가 윤선도에게 은사한 내역은 1628년(仁祖6) 4월에서 1632년(仁祖10) 4월까지 등서된 것 8건을 포함하여 모두 18건으로 확인된다. 인열왕후는 「孤山先生年譜」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군사부 윤선도의 생일을 챙길 정도로 그에게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보였던 것 같다.

문서의 규식은 大殿의 것과 마찬가지로 ‘[職銜][姓名]家賜送’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이 있고, 아무 문구 없이 하사 물품 목록과 발급날짜만 쓴 것이 있어 규식이 일정하지 않다. 또 內殿의 명령으로 鳳林大君房의 掌務가 작성한 2건의 문서가 있는데, 각각 규식이 다르다. 즉, ‘내전의 명령 내, (물품)을 師傅家에 보냄 (內敎內(물품)師傅家送)’ 혹은 ‘내전에서 나온 (물품)을 宅으로 보내는 일(自內出(물품)送宅事)’이라는 문구를 쓴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鳳林大君의 명령으로 봉림대군방의 장무가 작성한 은사문과 비교된다.

<도 8> 內殿 발급 恩賜文의 실례

실례			
恩賜文6	恩賜文9	恩賜文10	恩賜文14

內殿에서 발급된 은사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글’로 표기된 것이 많다는 점이다. 등서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의 은사문 가운데 6건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데, 각각 필체가 다르다. 이는 왕실 소용 물품을 담당하는 관리가 썼을 가능성이 크다.

內殿에서 보낸 물품들은 고기[肉], 마른 꿩고기[건티], 편포(片脯), 날꿩고기[싱티], 청어(청어), 생선(싱선), 진어생선(진어싱선), 웅어[위어], 날홍어[싱홍어], 작은 문어[쇼문어], 마른 광어[건광어], 마른 문어[乾文魚], 마른 대구[乾大口魚], 마른 송어[乾秀魚], 술[酒], 소주(쇼쥬), 당유자[唐柚], 초록토주(초녹토쥬/草綠吐紬) 등이다. 仁烈王后 외에도 <恩賜文94>에는 1660년(顯宗1) 당시 大王大妃였던 莊烈王后 趙氏(仁祖妃), 王大妃 仁宣王后 張氏(孝宗妃), 中宮殿 明聖王后 金氏(顯宗妃)가 각각 유배지로 떠나는 윤선도에게 表裏를 하사했다는 은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2.3 大君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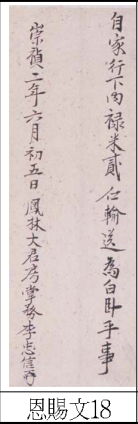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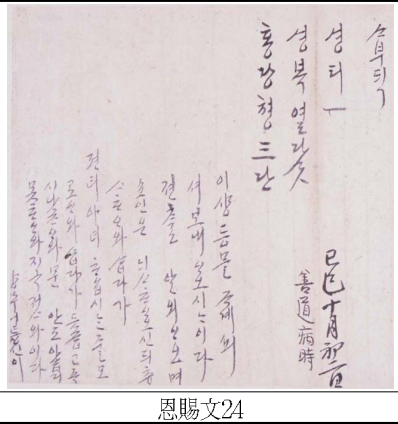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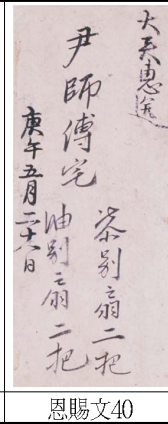
발급주체가 大君인 경우는 52건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중에는 大君房

의 掌務가 대군의 명에 따라 문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발급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은사문도 있지만, 이러한 문서의 여백에는 ‘大君惠送’, ‘自家惠送’ 등과 같이 윤선도가 별도로 添記한 것이 있어 대군이 보낸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大君房에서 보낸다는 사실이 명시된 은사문은 대부분 鳳林大君房의 掌務 李忠信과 辛德仁, 書員 崔挺炫이 작성한 것이다. 이들이 작성한 은사문의 규칙을 살펴보면, ‘自家께서 내리신 명령 내, (물품)을 실어 옮기시는 일.(自家行下內(물품)輸送爲白臥乎事)’이라는 문구를 가장 많이 쓰고, ‘自家行下內’ 대신 ‘自家敎畝內’나 ‘自家敎是所送’으로 쓴 것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급날짜를 쓰고 발급처, 작성자의 직함과 성명을 쓴 뒤 著名하였다. 여기서 ‘自家’는 ‘大君’의 존칭인 것 같다. <恩賜文24>의 장무 이충신이 쓴 한글 편지 가운데 ‘이상 등물 자계 띄셔 보내오시느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의 ‘자계’는 곧 ‘自家’로서 대군을 존대하여 일컫는 호칭으로 생각된다. 대군방에서도 한글로 표기된 은사문들이 보이는데, 이것 역시 필체가 각각 다르다. 이 중에는 대군이 직접 쓴 것도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

대군방에서 보낸 물품은 보내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윤선도가 師傅로서 講學廳에 있었을 때는 버루[硯], 먹, 붓, 삭지 등을 보냈고, 윤선도나 윤선도의 아들이 아플 때는 향유가루[香薰散], 육군자탕 10첩의 재료[六君子湯十貼生材] 등과 같은 의약과 날펍고기[生雉], 생선(싱선), 날문어[싱문어] 등 음식물을 보냈으며, 윤선도의 생일에는 증편, 절육, 소육, 어만두, 정과, 오미자, 자두, 홍소주, 산삼편 등을 푸짐하게 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름에는 갈모와 부채를 주었고, 12월에는 책력[曆日/曆書], 전약(煎藥), 황감(黃柑) 등을 주었으며, 쌀[貢米, 祿米], 콩[太, 祿太], 무명(貢木) 등을 주기도 했다.

<도 9> 大君房 발급 恩賜文의 규식과 실례

규 식	실례		
<p>自家行下内(물품) 輸送爲白臥平事 年月日 ○○大君房掌務「姓名」着色</p>	 <p>崇禎二年六月初五日 鳳林大君房掌務 李忠信 寫</p>	 <p>自家行下内 祿米貳石輸送爲白卧手事 ... 已巳十月廿百</p>	 <p>大君恩賜 尹師傅完 茶別扇二把 庚午五月二十六日</p>
	恩賜文18	恩賜文24	恩賜文40

3.3 윤선도에 대한 恩賜 배경

「은사첩」에 수록된 은사문은 대부분 윤선도가 鳳林大君과 麟坪大君의 師傅로 있었던 기간인 1628년(仁祖6) 4월에서 1632년(仁祖10) 11월 사이에 받은 것이다. 사부를 그만둔 뒤에도 몇 차례의 恩賜가 있었지만, 사부로 있었던 5년간의 은사에 비하면 매우 간헐적이었다. 윤선도가 사부 시절에 왕실로부터 여러 차례의 은사를 받았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리 지극히 돈독한 사제관계라 하더라도 무절제한 은사는 다른 신하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사의 정도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뚜렷한 발급사유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왕실의 윤선도에 대한 은사는 어떠한 경우에 행해졌던 것일까?

윤선도가 받은 은사내역 125건 가운데에는 은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간략하게 기재된 것이 종종 있다. 비록 단편적인 기록에 불과하지만, 당시 윤선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 특히 정치생활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 딱 들어맞는 연결고리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은사문이 발급된 해를 중심으로 윤선도의 관직

생활 속에서 은사와 관련된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¹³⁾

1) 大君師傅에 대한 사례

1628년(仁祖6) 봄 別試 文科 初試에 壯元으로 합격한 윤선도는 吏曹判書 張維의 천거로 鳳林大君과 麟坪大君의 師傅로 임명되어, 4월 2일부터 講學廳에서 두 대군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에 스승과의 첫 만남에 대한 사례로서, 大君房에서는 벼루, 떡, 붓, 삭지가 나왔고 內殿에서는 술과 고기안주가 나왔다.<臚1~2> 4월 11일에는 大君房으로부터 祿米 2섬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해진 봉록 외에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臚3> 이후 윤선도가 大君房으로부터 祿米, 貢米, 貢木, 祿太 등을 받는 모습이 은사문에 자주 보인다.

윤선도는 사부로 있으면서 집안의 경조사에도 恩賜가 이루어졌고, 時候에 따라 각종 물품들을 하사받는 일이 많았다. 사부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628년 5월 16일에 윤선도가 친형인 尹善言의 喪事를 당하여 大君房에서 賻儀條로 正布 3疋, 四丈付油席 1箇, 朔紙 2束을 보냈고,<臚6> 1630년(仁祖8) 윤선도의 아들 仁美와 義美가 司馬試에 합격함에 따라 인조로부터 특별히 음식을 하사받기도 했다.¹⁴⁾ 심지어 윤선도의 생일인 6월 21일에는 대군방에서 증편, 절육, 소육, 어만두, 분, 정과, 서진과 등 갖가지 음식들을 푸짐하게 내리기도 했다.<恩20,43,60> 이 정도로 예우를 하다 보니 병이라도 앓게 되면 大殿과 大君房 모두 香薷散, 淸肝解鬱湯料와 같은 약재와 生雉, 生鮮 등 몸을 보양할 만한 음식물을 보내기도 했다.<臚17~18/恩23~24,27,31> 時候와 관련된 물품으로는 여름에는 후추, 갈모, 부채 등이 있었고, 가을에는 農圃의 鄉菁이 있었으며, 겨울에는 曆書, 煎藥, 黃柑, 柑子, 鼠皮, 耳掩 등이 있었다. 또 봄과 가을이면 內需司로부터 頒賜되는 소금 1섬을 받았다.

13) 이하의 본문에서 < > 안의 내용은 해당 은사문의 번호를 나타낸 것으로 『附錄』을 참조하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恩賜文 臚書記’에 기재된 은사문은 ‘臚’으로, 恩賜文 원본은 ‘恩’으로 표시하였다.

14) 賜酒饌。【公子仁美義美聯中司馬，內賜香醞二十瓶肴饌甚豐，以侈聞喜之用。及放榜，召至差備門，賜酒，人皆榮之。】(『孤山先生年譜』卷1, 9.)

이외의 특별한 恩賜로는 宣醞時에 大殿에서 豹皮, 內殿에서 草綠吐紬를 받은 것, <恩17,53,72> 1631년(仁祖9) 3월 몇몇의 벗들과 양주의 고산 별서에서 사흘 간 東湖를 유람할 때 내전에서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하사받은 것,¹⁵⁾ <恩53> 1631년 9월 3일 殿試때 관원 간의 알력으로 停擧당한 뒤 戶曹正郎의 벼슬을 버리고 남쪽(해남)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乾文魚, 乾大口魚, 長引鮓, 片脯, 紅燒酒 등 酒饌을 하사받은 것¹⁶⁾ <恩65>이 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으로 1632년(仁祖10) 11월 20일 鳳林大君房에서 발급한 恩賜文이 있는데, 大君이 「大學」을 다 읽은 상으로 內殿에서 자주색 도련주(紫的擣鍊紬), 남색 도련주(藍擣鍊紬)가 나왔으나 兪선도가 병으로 입궐하지 못하여 집으로 보낸 것이라고 한다. <恩81>

1632년 11월, 兪선도의 건강 악화로 인해 해남에 돌아오게 됨으로써 5년여 간의 대군사부 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 때 雪山圖 두 족자를 받았다.¹⁷⁾

2) 師傅를 그만둔 뒤, 兪선도에 대한 仁祖의 예우

1633년(仁祖11) 봄에 增廣 鄉解 別試에서 壯元及第하였고, 4월에 시행된 增廣 覆試에서는 對策 과목에서 일등으로 뽑혔다. 兪선도의 이러한 경사에 仁祖는 4월 26일에 乾文魚, 乾大口魚, 快脯, 長引鮓, 生雉, 生鮮, 酒 등을 하사하며 축하하였다.¹⁸⁾ <恩85> 이후 兪선도는 禮曹正郎, 關西京試官을 거쳐 9월에는 世子侍講院文學이 되었으나, 姜碩期등의 모함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海南으로 돌아갔다. 仁祖가 여러 번 벼슬을 내리며 불렀으나 병을 이유로 사양하다가, 1634년(仁祖12) 봄에 成山현감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1635년(仁祖13) 겨울 慶尙監司 兪伯儻의 모함으로 결국 成山현감을 사임하고 해남으로 돌아와 두문불출 조용히 지냈다.

15) 三月, 遊東湖, 內賜酒饌. 【公與數友遊東湖孤山別墅, 有此恩賜.】 (상계서, 10.)

16) 九月, 呈遞戶曹正郎南歸, 賜酒饌. 【大君房亦送米豆臘藥, 以公遠行也.】 (상계서, 10.)

17) 十一月, 病遞庶尹及師傅, 賜雪山圖二障子. 【時公疾劇幾危, 上曰, 賜藥物及廚饌, 又下雪山圖二障子.】 (상계서, 10.)

18) 四月, 增廣覆試對策擢一等, 賜香醞雉鮮. 【大君房亦送米綿, 甚優.】 (상계서, 11.)

3) 孝宗과 스승 윤선도

1649년에 즉위한 孝宗은 대군 시절 가르침을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1652년 (孝宗3) 1월 23일에 윤선도를 成均館司藝로 임명하여 부르면서 특별히 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예우하였다.¹⁹⁾<有旨> 3월 4일에 20여 년만의 상봉으로 기뻐하며 주찬을 내렸고,²⁰⁾ 27일에는 특별히 同副承旨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正言 李萬雄 등의 반대와 政院의 쟁론에 부딪쳐 윤선도는 곧 면직될 수밖에 없었기에, 곧 도성을 나와 해남으로 내려갈 행장을 꾸렸다. 이에 효종은 承政院에 하교하여 해남으로 내려가는 윤선도를 만류하였으므로,²¹⁾<傳教> 윤선도는 양주의 孤山村舍에 머무르게 되었다. 효종은 그를 위해 궁중 관원을 보내어 문안하며 酒饌, 節扇, 油席을 내리면서 위로하였다.²²⁾<恩86~87> 이후 효종은 8월 11일에 특별으로 윤선도를 禮曹叅議에 제수하였고, 은 갓장식, 붉은 매듭, 공작털, 활, 화살, 환도 등을 특별히 하사하였다.²³⁾<恩89> 11월 7일에는 仁祖反正의 靖社功臣인 原平府院君 元斗杓를 탄핵하는 “論元斗杓疏”를 올렸다가 관직을 삭탈 당하고 門外로 黜送되어, 海南의 金鎖洞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1657년(孝宗8) 가을에 중풍의 병이 위독해져 평소 醫術에 밝은 윤선도가 부름을 받아 상경하게 되었다. 이때 쌀, 콩, 소금, 마른 미역을 하사받았다.²⁴⁾<恩90> 겨울에 僉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해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효종은 약물, 술, 돼지고기, 사슴고기, 꿩고기 등을 하사하였다.²⁵⁾<恩91~92> 이후

19) 上謂入侍承旨洪命夏曰, “尹善道乃予始學時師傅也. 此人善於訓誨, 故先王嘉之, 特令仍任師傅, 至於三年之久. 予之解蒙, 實賴此人之功也. 予常不能忘于懷, 其令政曹除職, 別爲下諭, 使之上來.”(『孝宗實錄』 卷8 孝宗3年 1月 18日(條).)

20) 三月, … 肅謝後卽命引見, 賜酒饌.(『孤山先生年譜』 卷1, 19.)

21) 傳曰, 前承旨尹善道, 頃遭慘酷之誣毀, 必不安於在京, 顛倒下去, 若有如此狼狽之患, 實非予當初相召尊禮之意, 本院傳諭, 使之勿爲下去, 從容進退, 以體予至意, 可也.(『承政院日記』 孝宗3年 4月 10日(條).)

22) 七月, 上遣掖隸宣恩問, 賜酒饌節扇油席.(『孤山先生年譜』 卷1, 20.)

23) 九月, 賜銀笠飾紅匾條孔雀羽鶴羽弓箭俗環刀.(『상계서』, 20-21.)

24) 九月, 承召詣京 【時, 中宮違豫, 召公議藥, 公不得已承命.】, 賜米豆鹽薑海藿.(『상계서』, 23.)

25) 十一月, 除僉知中樞府事, 陳疏乞退, 再疏, 不許. 【公亦有疾不得歸, 上賜賚絡繹, 且下藥物.】 十二月, 賜柑, 且賜香醞猪獐雉柑橘柚.(『상계서』, 23.)

1658년(孝宗9) 3월에는 왕의 특명으로 工曹叅議가 되고, 더불어 生細魚, 生箭魚, 生大蝦 등의 酒饌을 하사받았다.<恩93> 윤선도는 疏를 올려 사퇴하려 했으나 政院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論政院壅蔽疏”를 올려 승정원이 상소를 가로막고 있다고 탄원했다. 효종은 정원을 문책하였고 윤선도에게는 향온과 생선 등의 음식을 하사하였다.²⁶⁾ 6월에 정개청의 서원 철폐 불가를 논한 “國是疏”를 올렸으나 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8월에 정개청의 일로 파직되어 고산에 머물렀다.

4) 유배지로 이어진 恩賜

1659년(孝宗10) 5월 4일, 효종이 세상을 떠나고 현종이 즉위하였다. 이때 윤선도는 僉知를 제수 받고 총호사 및 여러 지관들과 함께 적합한 산릉을 찾는 일을 했는데, 宋時烈 등과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파직되는 데 이르렀다. 1660년(顯宗1)에는 趙大妃의 服制문제로 송시열의 기년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허목의 삼년설을 지지하는 장문의 疏를 올려 朝野를 들끓게 하였다. 이로 인해 윤선도는 함경도 三水郡에 安置되게 되었다. 이때 대비전, 중궁전, 대왕대비전에서 차례로 表裏를 하사하여²⁷⁾ 유배지로 떠나는 윤선도를 위로하였다.<恩94>

1665년(顯宗6) 2월에 윤선도의 유배지는 북방의 삼수에서 남쪽의 전라도 光陽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1667년(顯宗8) 7월에 석방의 명이 내려져 8월에 해남으로 돌아와 芙蓉洞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671년(顯宗12) 6월 11일, 85세의 나이로 자신이 거처하던 부용동 樂書齋에서 세상을 떠났다.

4. 결 론

恩賜文은 왕실에서 물품 등을 하사하면서 발급하는 문서로 흔하지 않은 자료이다. 그러므로 해남윤씨가의 은사문은 일찍이 ‘恩賜狀’ 혹은 ‘下膳狀’이라는 명

26) 時除工曹叅議, 陳疏乞免, 再疏, 賜香醞鮮魚等物.(상계서, 23.)

27) 五月, … 王大妃殿賜表裏, 六月, 中宮殿賜表裏, 大王大妃殿賜表裏. 【皆自京家傳到公, 惶恐拜受.】(「孤山先生年譜」卷2, 32.)

칭으로 소개되어 알려진 바 있다. 필자는 기존의 명칭들이 문서의 특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몇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새로운 명칭으로서 ‘恩賜文’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낱장의 은사문이 현재의 「은사첩」 형태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은사문이 일차적으로 윤선도에 의해 상당부분 정리되었고, 윤종에 의해 성첩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발급주체와 발급관청에 따라 문서작성규칙과 표현 용어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먼저 大殿, 內殿, 大君房과 같은 발급주체에 따라 해남윤씨가 은사문을 분류하였고, 다시 발급관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하사 물품에 따라 은사를 담당하는 관청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고, 은사문에 보이는 발급관청명칭이나 직인들을 통해 왕실에서 은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지 그 일면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왕실의 은사 시행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남윤씨의 은사문뿐만 아니라 奎章閣, 淸松沈氏家 등에 소장된 은사문들도 함께 아울러 비교·분석한 뒤에야 가능할 것이다.

해남윤씨의 은사문은 윤선도가 대군사부로 있었던 기간에 받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왕실의 恩賜와 恩賜文에 대해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은사문 가운데 해남윤씨의 것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문서의 발급 시기도 특정 기간에 몰려 있으므로,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은 조선 왕실의 은사와 은사문 연구에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經國大典註解」.

「孤山先生年譜」. 藏書閣 所藏本 (D3B 81).

「朝鮮史料集眞續解說」 第三輯. 朝鮮總督府, 1937.

「古文書集成」三.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서울: 知識産業社, 1989.

尹炳泰 等 共著. 「韓國古文書整理法」.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5.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宋日基·盧基春. 「海南綠雨堂의 古文獻」 第1冊. 서울: 태학사, 2003.

宋日基·盧基春. 「海南綠雨堂의 古文獻」 第2冊. 서울: 태학사, 2003.



[附錄] 「恩賜帖」所載 恩賜文 目錄

1. 恩賜文 贈書記

번호	발급날짜	발급주체	물품내역	주기사항
1	1628(仁祖6)/4/4	大君	硯一, 墨四笏, 筆十枚, 朔紙十束	大君惠送
2	1628(仁祖6)/4/8	仁烈王后	酒肉	內殿賜送
3	1628(仁祖6)/4/11	大君	祿米貳石	自家惠送
4	1628(仁祖6)/5/5	仁祖	胡椒, 扇子	賜送
5	1628(仁祖6)/5/6	大君	笠帽, 扇子	自家惠送
6	1628(仁祖6)/5/16	大君	正布三疋, 四丈付油席一, 朔紙二束	自家以善道舍兄喪事贈送
7	1628(仁祖6)/7/17	仁祖	馬一匹	賜送
8	1628(仁祖6)/8/14	大君	朔紙三束, 筆五柄, 墨四錠	自家惠送
9	1628(仁祖6)/9/18	大君	朔紙二束, 墨二錠, 筆五柄	自家惠送
10	1628(仁祖6)/10/11	仁祖	麻浦郊草二十同	賜帖
11	1628(仁祖6)/12/11	大君	曆日, 煎藥	自家惠送
12	1628(仁祖6)/12/27	大君	黃柑十枚	自家惠送
13	1629(仁祖7)/1/12	大君	祿米二斛	自家惠送
14	1629(仁祖7)/1/19	大君	白紙十卷, 筆五枚, 墨二笏	自家惠送
15	1629(仁祖7)/3/3	仁烈王后	酒	內殿饋酒于講學廳
16	1629(仁祖7)/3/28	仁烈王后	唐柚一枚	內殿賜送
17	1629(仁祖7)/6/20	大君	香薷散五貼	善道病時/自家惠送
18	1629(仁祖7)/9/28	大君	生雉一首	善道病時/自家惠送
19	1629(仁祖7)/10/27	大君	臘藥三種, 筆五, 墨二	自家惠送

2. 恩賜文

* () : 添記 부분

번호	발급날짜	발급주체	문서작성자	물품내역	주기사항	인장 및 서명
1	1628(仁祖6)/8/2	仁祖		乾文魚一尾, 乾大口魚三尾, 長引腹二注之, 乾秀魚二尾, 乾鮓魚五尾, 生雉二首, 生鮮二尾, 紅燒酒五瓶	尹善道家賜送	[奉使之印]
2	1628(仁祖6)/10/5	仁祖	內需司	鹽壹石	傳教內乙用良·尹善道家送	[內需司印]
3	1628(仁祖6)/10/14	仁祖	農圃 韓	鄉菁拾伍丹	師簿尹善道賜送	[奉使之印] [着名]
4	1628(仁祖6)/12/18	仁祖		柑子伍枚	師傅尹善道家賜送	[奉使之印]

해남 녹우당 소장 「恩賜帖」 고찰

번호	발급날짜	발급주체	문서작성자	물 품 내 역	주기사항	인장 및 서명
5	1628(仁禔) /12/22	仁祖		生鹿後脚一, 生雉二首		[奉使之印]
6	1628(仁禔) /12/30	仁烈王后		柑子拾伍箇	大君師傅尹善道家 賜送(內殿賜送)	
7	1629(仁禔)	仁祖		漆別扇二把, 油別扇二把	(賜)	[廂庫之印]
8	1629(仁禔)	仁祖		胡椒三升	(賜)	[廂庫之印]
9	1629(仁禔) /1/21	仁烈王后		청어석들음	등던의셔나오시 이다	
10	1629(仁禔) /2/16	仁烈王后		싱티이슈, 싱선삼미	대군 스부윤선도가 스송 괴 스이월십육 일(內殿賜送)	
11	1629(仁禔) /3/13	仁祖	內需司	鹽壹石	傳教內乙用良 ·尹 善道家送	[內需司印]
12	1629(仁禔) /윤4/4	仁祖		生羣魚七冬音	尹善道家賜送	[奉使之印]
13	1629(仁禔) /윤4/14	仁烈王后		진어싱선열, 위어닐굽드름	(內殿賜送)	
14	1629(仁禔) /윤4/18	仁烈王后	鳳林大君房 掌務李忠信	貢米貳石	內教內 ·師博家送	[着名]
15	1629(仁禔) /5/6	仁祖		白貼扇一把, 漆別扇一把 油別扇一把	師傅尹善道家 (大殿賜送)	[廂庫之印]
16	1629(仁禔) /5/15	仁祖		生麩半口, 生雉二首, 生鮮 二尾	大君師傅尹善道家 賜送	
17	1629(仁禔) /5/17	仁烈王后		초녹도류오십척一필 (豹皮一令 / 草綠吐袖五 十尺一匹)	대군 스부윤선도 (內殿宣醴後所賜 也 又大殿賜豹皮 一令 上年冬內殿 宣醴時亦賜草綠 吐袖五十尺一匹)	
18	1629(仁禔) /6/5	鳳林大君	鳳林大君房 掌務李忠信	祿米貳石	自家行下內 ·輸送 爲白臥乎事	[着名]
19	1629(仁禔) /6/13	鳳林大君	鳳林大君房 掌務李忠信	敦厚白紙伍卷, 筆伍柄 墨貳張, 笠帽壹事	自家輸送	[着名]
20	1629(仁禔) /6/21	大君		중편 一과, 절육 一과, 쇼육 二과, 튜복당 一과, 어만두 一과, 분 一동히, 경과 一과, 셔진과 一모관, 닝금 一과, 조도 一과, 흥쇼쥬오 병, 기족피회 一보구	(善道初度 / 大君 惠送也 七人戴來一 人領來)	

번호	발급날짜	발급주체	문서작성자	물 품 내 역	주기사항	인장 및 서명
21	1629(仁禮) /8/19	大君	宮掌務 李忠信	朔紙參卷, 猪毛筆伍 柄, 墨貳笏 等	自家教是所送…輸送 爲白臥乎事	[着名]
22	1629(仁禮) /9/9	仁祖	內需司	鹽壹石	傳教內乙用良 今秋等 鹽頒賜…尹善道家送	[內需司印]
23	1629(仁禮) /9/25	大君	대군것	싱티돌, 싱선돌, 싱복열	대군것터서 (善道病時)	
24	1629(仁禮) /10/2	大君	장무 이통신이	싱티一, 싱복열다섯, 홍당청三단	스부딕 (善道病時) 이상등물 주게 띄어 보 내오시느이다 전츠 로 알의 오오며 쇼인은 너스호오오신되 쥬스 호오와습다가 편티 아 너 호습시느 줄 모로 오와습다가 듯 좁고 즉 시 낮조오와 문안도 아 옳디 못호오와 지극 저 스와이다	
25	1629(仁禮) /10/6	仁祖	農圃 玉	鄉菁拾伍丹	師傅尹善道家賜送… 輸送事	[奉使之印] [着名]
26	1629(仁禮) /10/19	仁祖		乾大口魚三尾, 中脯二 介, 乾秀魚二尾, 石首 魚五束, 生雉二首, 生 鮮二尾, 酒五瓶	尹善道家賜送 (大殿賜送)	[奉使之印]
27	1629(仁禮) /11/20	鳳林大君	봉님대군것	싱문어네가내, 싱복이 십개	봉님대군것피접소의서 (善道病時)	
28	1629(仁禮) /12/4	大君		煎藥一封, 柑子十枚 曆書一	師傅宅	
29	1629(仁禮) /12/9	仁祖		生鹿後脚一, 生雉二首	尹善道家賜送	[奉使之印]
30	1629(仁禮) /12/24	大君	宮掌務 李忠信	祿米二石	自家行下內…輸送爲白 臥乎事	[着名]
31	1630(仁禮) /2/3	大君		싱티돌, 싱장반구 (淸肝解鬱湯料十貼)	(有賤疾時 / 自家惠送 又送加入淸肝解鬱湯 料十貼)	
32	1630(仁禮) /2/5	仁祖		柑子五枚	大君師傅尹善道家賜 送	[奉使之印]
33	1630(仁禮) /2/19	仁祖		乾大文魚一尾, 乾大口 魚二尾, 乾雉二首, 片 脯二箇, 乾秀魚二尾 生雉二首, 生鮮二尾 酒五瓶	佐郎尹善道家賜送	[奉使之印]

해남 녹우당 소장 「恩賜帖」 고찰

번호	발급날짜	발급주체	문서작성자	물 품 내 역	주기사항	인장 및 서명
34	1630(仁祖) /2/20	鳳林大君	鳳林大君房 掌務李忠信	祿米壹駄	自家教令內·輸 送爲白臥乎事	[着名]
35	1630(仁祖) /2/23	仁烈王后		싱티三, 싱선三, 싱홍어二	(內殿賜送)	
36	1630(仁祖) /2/28	鳳林大君	掌務李忠信	朔紙參卷 筆伍柄 墨二笏 等	自家所送·輸送 爲白臥乎事	[着名]
37	1630(仁祖) /4/23	仁祖		生葦魚七冬音	工曹佐郎尹善道 家賜送	[奉使之印]
38	1630(仁祖) /5/4	仁烈王后		쇼문어三, 건광어二, 건티 二, 편포一, 싱선一, 싱타; 쇼쥬오병	(內殿賜送)	
39	1630(仁祖) /5/5	仁祖		胡椒二升, 白貼扇一把, 漆別扇一把, 油別扇一把	大君師傅尹善道 家(大殿賜送)	[廂庫之印]
40	1630(仁祖) /5/28	大君		漆別扇二把, 油別扇二把	(大君惠送)尹師 傅宅	
41	1630(仁祖) /6/9	大君		싱티하나, 싱선하나, 은구어열다섯	피소의셔나시논 것	
42	1630(仁祖) /6/13	鳳林大君	鳳林大君房 掌務李忠信	祿米一駄 (六君子湯十貼生材)	自家行下內·輸 送爲白臥乎事 (又因第三兒禮 美患店惠送六君 子湯十貼生材)	[着名]
43	1630(仁祖) /6/21	大君		증편일괴, 산슴편일괴, 낭식 건정과일괴, 남금일괴, 조 일괴, 서진과일괴, 상티전데 슈일괴, 싱선전유일괴, 어만 도일괴, 분일괴, 오미즈일괴 전복숙일괴, 히슌쥬일괴, 흥 합초일괴, 연계일괴, 각 쉐 육일괴, 압난일괴, 흥쇼쥬 병, 기즈피혹화즈청구一	(善道初度 / 大君惠送也 八人戴來)	
44	1630(仁祖) /7/4	仁祖	內需司	鹽壹石	傳教內乙用良 頒賜 … 師傅尹善道家送	[內需司印]
45	1630(仁祖) /9/18	鳳林大君	鳳林大君房 掌務李忠信	祿米二石	自家教令內·輸 送爲白臥乎事	[着名]
46	1630(仁祖) /9/18	大君		싱티하나, 싱문어반, 건년 어하나	(自家惠送)	
47	1630(仁祖) /9/21	仁祖	內需司	鹽壹石	傳教內乙用良 今秋等頒賜 … 師傅尹善道家送	[內需司印]

번호	발급날짜	발급주체	문서작성자	물 품 내 역	주기사항	인장 및 서명
48	1630(仁祖) /10	仁祖	農圃 玉	鄉菁十五丹	師傅尹善道賜送 … 輸送事	[奉使之印] [着名]
49	1630(仁祖) /12/8	大君	大君房	싱티二, 청어一드름	대군것	
50	1630(仁祖) /12/10	仁祖		鹿後脚一, 生雉二首	大君師傅尹善道家 賜送	[奉使之印]
51	1630(仁祖) /12/13	仁祖		柑子五枚	大君師傅尹善道家 賜送	[奉使之印]
52	1630(仁祖) /12/21	仁祖	內需司	貢米壹石	傳教內乙用良·尹 善道家送	[內需司印]
53	1631(仁祖) /3/13	仁烈王后		乾文魚一尾, 乾大口魚二尾 片脯一箇, 乾秀魚二尾, 短 引饅三貼, 生松魚一尾, 生 雉二首, 生鮮二尾, 生饅三 十箇, 香醞酒五瓶 (豹皮一令)	尹善道家 賜送 (與掌樂主簿李瀚 擬遊東湖時 內殿 賜送 / 三月二十七 日 講學廳仕進 時 大殿宣醞賜豹 皮一令)	
54	1631(仁祖) /4/5	仁祖	內需司	貢米貳石, 太貳石	傳教內乙用良 大殿 賜送云 … 以上 尹善道家送	[內需司印]
55	1631(仁祖) /4/28	仁祖		生羣魚七冬音	尹善道家賜送	[奉使之印]
56	1631(仁祖) /端午	仁祖		白貼扇一把, 漆別扇一把 油別扇一把	大君師傅尹善道家 (大殿賜送)	[廂庫之印]
57	1631(仁祖) /5	仁祖		胡椒三升	(賜)	[廂庫之印]
58	1631(仁祖) /5/12	大君		漆別扇二把, 油別扇二把	(自家所送)	
59	1631(仁祖) /6/18	鳳林大君	鳳林大君房 掌務李忠信	貢米壹石, 貢太壹石, 石 首魚拾五束	自家行下內	[着名]
60	1631(仁祖) /6/21	鳳林大君	鳳林大君房 掌務李忠信	乾文魚一, 乾大口三尾 乾雉二首, 片脯二, 乾秀 魚三尾, 生雉二首, 生鮮 二尾, 紅燒酒五瓶	宮出酒饌	[着名]
61	1631(仁祖) /7/19	仁祖		胡椒五升 (胡椒, 丹木)	(進講學廳時 大殿 宣醞 賜胡椒及丹 木)	[廂庫之印]
62	1631(仁祖) /7/20	仁祖	內需司	貢米貳石, 貢太壹石	傳教內乙用良… 以上 尹善道家送	[內需司印]
63	1631(仁祖) /8/吉日	大君		黃毛筆五柄, 眞墨三笏 朔紙二卷	(自家惠送)	

해남 녹우당 소장 「恩賜帖」 고찰

번호	발급날짜	발급주체	문서작성자	물 품 내 역	주기사항	인장 및 서명
64	1631(仁祖9) /9/3	大君	掌務李	祿米一石, 太一石 等 (臘藥五種)	自家行下內 · 輸送爲白臥乎事 (同日又惠送臘藥五種)	[着名]
65	1631(仁祖9) /9/3	仁祖		乾文魚一尾, 乾大口魚三尾, 乾廣魚二尾, 乾雉二首, 乾秀魚二尾, 長引鰓三注之, 片誦二箇, 生雉二首, 生鮮二尾, 柏子一斗, 紅燒酒五瓶	正郎尹善道家賜送 (殿試時 被停於李樟之後 將棄官南還 有此恩賜)	[奉使之印]
66	1631(仁祖9) /閏11/3	鳳林大君	鳳林大君房 掌務李忠信	米貳石	自家行下內 · 輸送爲白臥乎事	[着名]
67	1631(仁祖9) /閏11/4	鳳林大君	鳳林大君房	늑서이, 감조열, 전약 (鼠皮, 紗冒, 耳掩)	윤스부딕 / 봉남대군것 (本月初一日 惠送鼠皮紗冒耳掩)	
68	1631(仁祖9) /11/29	大君		건슈어이, 건년어, 년어남해이, 생략스십	(自家所送)	
69	1632(仁祖0) /1/15	仁祖		柑子五枚	大君師傅尹善道家賜送 (右出於大殿云)	[奉使之印]
70	1632(仁祖0) /1/17	大君		黃柑十枚 (紙十束, 硯一面, 筆十柄, 墨五笏 / 朔紙二卷, 筆五枚, 墨三笏)	(自家惠送) (二月 二自家惠送紙十束硯一面筆十柄墨五笏/三月 兩自家惠送朔紙二卷筆五枚墨三笏)	
71	1632(仁祖0) /3/19	仁祖	內需司	鹽壹石	傳教內乙用良 今春等鹽 頒賜 … 師傅尹善道家送	[內需司印]
72	1632(仁祖0) /4/1	仁祖 仁烈王后		(豹皮一令, 紫的吐紬五十尺)	(大殿宣醴 賜豹皮一令 / 中殿賜紫的吐紬五十尺)	
73	1632(仁祖0) /4/2	仁祖	內需司	貢米貳石, 赤豆壹石	傳教內乙用良 … 以上尹善道家送	[內需司印]
74	1632(仁祖0) /4/7	大君	掌務辛德仁	祿米二石	自家行下內 · 輸送爲白臥乎事	[着名]
75	1632(仁祖0) /4/7	仁祖		生羣魚七冬音	大君師傅尹善道家賜送	[奉使之印]
76	1632(仁祖0) /5/5	仁祖		胡椒二升, 白貼扇一把, 漆別扇一把, 油別扇一把	大君師傅尹善道家賜送	[廂庫之印]

번호	발급날짜	발급주체	문서작성자	물 품 내 역	주기사항	인장 및 서명
77	1632(仁祖0) /5/12	鳳林大君 麟坪大君		胡椒五升,笠帽一事,白貼扇二把,漆貼扇一把,漆別扇二把,油別扇二把	(兩自家惠送)	
78	1632(仁祖0) /9	仁祖	農圃 安	鄉菁拾伍丹	師傅尹善道家賜送 ... 輸送事	[奉使之印 [着名]
79	1632(仁祖0) /9/14	仁祖	內需司	鹽壹石	傳教內乙用良頒賜 ... 師傅尹善道家送	[內需司印]
80	1632(仁祖0) /11/15	大君		祿米壹石,祿太壹石,(內出)乾秀魚三尾,乾鱧魚一尾,洗鱗石首魚五束,大口魚卵一器,鱧魚卵一器	自家行下內 ...	
81	1632(仁祖0) /11/20	仁烈王后	鳳林大君房 掌務辛	紫的擣鍊紬壹匹,藍擣鍊紬壹匹	自內出...送宅事 內教內 此物 自家大學畢讀之賞 送之爲計 師傅以病 不進關中 故未得送宅 而今以內出也 謹告此意之事 內教教是乎等 以上宅而前者來宅書錄仔細 捧入於內爲白有臥乎事	[着名]
82	1633(仁祖1) /3/24	仁祖	內需司	鹽壹石	傳教內乙用良 今春等 頒賜...師傅尹善道家送	[內需司印]
83	1633(仁祖1) /4/吉日	大君		朔紙一卷, 黃毛筆四柄, 眞墨二笏	(自家所惠)	
84	1633(仁祖1) /4/11	大君	書員崔挺炫	貢木十五疋,祿米二石	尹師傅宅 自家行下內...輸送爲白臥乎事	[着名]
85	1633(仁祖1) /4/26	仁祖		乾文魚一尾, 乾大口魚三尾, 乾雉二首, 乾秀魚二尾, 乾廣魚二尾, 快脯二介, 長引鰻三注之生雉二首, 生鮮二尾, 生葦魚五冬音, 酒五瓶	前師傅尹善道家賜送	[奉使之印]

해남 녹우당 소장 「恩賜帖」 고찰

번호	발급날짜	발급주체	문서작성자	물 품 내 역	주기사항	인장 및 서명
86	1652(孝宗) /7/2	孝宗		乾猪一口, 全鰓一貼, 乾文魚一尾, 乾大口魚三尾, 乾廣魚五尾, 乾雉五首, 槌鰓十貼, 長引鰓十注之, 柏子一斗, 生雉二首, 生鮮二尾, 紅燒酒五瓶	前承旨尹善道家賜送	[奉使之印]
87	1652(孝宗) /7/2	孝宗		漆別扇二把, 油別扇三把, 四張付油席一浮	前承旨尹善道家賜送	[廂庫之印]
88	1652(孝宗) /8/6	孝宗	內需司	倉米貳石, 石首魚參拾束	傳教內乙用良...以上 前承旨尹善道家賜送	[內需司印]
89	1652(孝宗) /9/4	孝宗		銀笠飾一部, 大紅廣多繪一條, 孔雀羽一對, 伐月乙羽一對, 弓俗筒筒一部, 鄉環刀一把, 黑角弓一張, 長箭一部	禮曹參議尹善道家賜送	[廂庫之印]
90	1657(孝宗) /9/13	孝宗	內需司	田稅米肆石, 田稅太肆石, 鹽貳石, 官藿伍拾斤, 石首魚參拾束	傳教內乙用良...以上 前承旨尹善道家送	[內需司印]
91	1657(孝宗) /12/19	孝宗		柑子十枚	僉知尹善道家賜送	[奉使之印]
92	1657(孝宗) /12/26	孝宗		山猪半口, 生簞一口, 生雉五首, 香醴五瓶, 唐柚子二枚, 柑子十枚, 洞庭橘十枚, 乳柑十枚	僉知尹善道家賜送	[奉使之印]
93	1658(孝宗) /3/27	孝宗		生細魚七冬音, 生箭魚二十尾, 生大蝦二十箇, 生中舌魚一尾, 生小舌魚一尾, 生中秀魚二尾, 酒五瓶	參議尹善道家賜送	[奉使之印]
94	1660(顯宗) /5/27	仁宣王后		(表裡)	(庚子五月二十七日 王大妃殿賜表裡)	
	1660(顯宗) /6/3	明聖王后		(表裡)	(六月初三日 內[中宮]殿賜表裏)	
	1660(顯宗) /6/7	莊烈王后		(表裡)	(初七日 大王大妃殿賜表裏)	

к с і